

제9회 도시인문학세미나

도시와 마을을 보는 문인들의 상상력

2014. 11. 27(목) 15:00~17:30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주 최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제9회 도시인문학세미나

도시와 마을을 보는 문인들의 상상력



Program

개 회 식 |
15:00~15:10

개회선언

진 행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축 사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세 미 나 |
15:10~17:30

주제 발표

도시와 마을을 보는 문인들의 상상력

이문재 시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함민복 시인

토 론

문계봉 인천작가회의 회장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제9회 도시인문학세미나

도시와 마을을 보는 문인들의 상상력

C o n t e n t s

I.

발표문

- 우리는 모두 도시에서 죽는다 / 11
이문재 시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내가 만난 마을 혹은 도시에 관한 기록들 / 25
함민복 시인

II.

토론문

- 시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
저 도시도 나를 기억하는가 / 41
문계봉 인천작가회의 회장
- 우리가 꿈꾸는 도시 / 47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III.

인천도시인문학센터

1. 도시인문학 / 53
2. 인천도시인문학센터 / 55

제9회
도시인문학
세미나



도시와 마을을 보는 문인들의 상상력

• 발표문



제9회 도시인문학세미나 발표자 프로필



이 문 재

시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등단

- 1982년 『시운동』 4집에 '우리 살던 옛집 지붕' 등을 발표하며 등단

- 주요작품

- 『지금 여기가 맨 앞』, 문학동네, 2014
- 『마음의 오지』, 문학동네, 1999
-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문학동네, 2009
-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문학동네, 2007
- 『제국호텔』, 문학동네, 2004
-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문학동네, 2001
- 『산책시편』, 민음사, 1993 등

- 수상

- 2007년 제7회 '노작문학상'
- 2005년 제5회 '지훈문학상'
- 2002년 제13회 '소월시문학상'
- 1999년 제4회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 1994년 제5회 '김달진문학상'



함 민 복

시인

- 등단

- 1988년 계간 『세계의 문학』에 시 '성선설' 등을 발표하며 등단

- 주요작품

-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시선집, 시인생각, 2014
- 『눈물을 자르는 눈꺼플처럼』 제5시집, 창비, 2013
- 『말랑말랑한 힘』 제4시집, 문학세계사, 2005
- 『길들은 다 일가친척이다』 산문집, 현대문학, 2009
- 『눈물은 왜 짠가』 첫 산문집, 이레, 2003
-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제3시집, 창작과비평사, 1996
- 『자본주의의 약속』 제2시집, 세계사, 1993
- 『우울 氏의 一日』 첫 시집, 세계사, 1990 등

- 수상

- 2012년 '제비꽃서민시문학상'
- 2011년 제6회 '윤동주 문학 대상'
- 2010년 '인천광역시 문화상'
- 2005년 제2회 '애지문학상'
- 2005년 제7회 '박용래 문학상'
- 2005년 제24회 '김수영 문학상'
- 1996년 문화관광부 주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우리는 모두 도시에서 죽는다

이문재 (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 도시는 ‘악’ 이었다

1-1. 서울과의 첫 대면

나에게 도시는 ‘악’ 이었다. 두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경기도 김포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도시는 멀고 낯선 것이었다. 나는 초가집에서 태어났고, 초가집들로 이뤄진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다. 전기가 열 살 무렵에야 들어왔고 마을 앞 신작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포장되지 않았다.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 제도교육을 통해 도시를 접했지만,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땅이었다. 하늘을 우러르는 땅, 초목이 뿌리내리는 땅, 빗물을 스며들게 하고 짐승과 벌레를 보듬는 땅,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가 어우러지는 땅.

1960년대 중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대면한 대도시는 두렵고 불편했다. 하지만 한켠에서 호기심이 발동했다. 도시에 대한 양가감정이 꿈틀댄 것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지만) 도시에 대한 시골 아이의 부러움과 부끄러움은 서구 근대에 대한 비서구의 태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식민지를 경험한 모든 문화권이 그렇듯이 서구 근대교육의 첫 세례를 받은 자녀는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한다. 서로 갈등하는 전통-아버지와 근대-아들 사이로 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김포와 서울 사이로 난 좁은 길에서 적지 않은 찰과상을 입었다.

대여섯 살 무렵, 비포장 신작로를 한 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인천에 대한 첫인상은 희미하다. 서울에서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버스가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가야 했다. 돌이켜보면, 기차는 버스와 전혀 다른 성격의 이동수단이었다. 기차는 버스와 달리 권위적 분위기가 강했다. 버스가 외갓집에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기차는 관청을 방문하는 느낌이었다. 어린아이가 기차에 오르는 과정은 몰래 어른들의 엄숙한 의식(儀式)에 참여하는 것 같았다.

서울역, 전차, 골목, 중국집, 수박화채, 수돗물, 전등... 서울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다. 하지만 저 첫 장면 하나하나가 다 문화충격이었다. 음식과 관련된 기억이 가장 오래 남아 있다. 서울에서 나고 자

란 친척 누이를 따라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짜장면 맛 보다 짜장면을 다 비운 뒤 서울 누이가 들려준 말이 더 또렷하다. “젓가락을 이렇게 부러뜨려 놓아야 돼.” 그래야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있다. “비빔밥은 시키지 마.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넣는데.” 누이는 계속했다. “그래도 비빔밥을 더 먹고 싶으면 너무 맵다고 하면서 밥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누이의 자상한 가르침은 나에게 ‘도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한마디로 입력됐다.

대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인천과 서울을 출입하면서 도시에 대한 예방주사를 충분히 맞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는 방학 때마다 혼자 서울을 오갔다. 혼자서 기차를 타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열차가 서로 연결되는 통로에 서 있거나, 출입구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볼 때 나는 또래들보다 조금 옷자란 것이 분명하다는 자각이 들었다. 서울 갈 때는 흰 옷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새 옷이었다. 6학년 때인가는 버석거리는 청바지에 반자동 시계를 차고 기차에서 내리기도 했다. 서울에 가면 영락없는 촌놈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촌놈이 아니었다. 도시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이 저렇게 뒤범벅되어 있었다.

중학교까지는 김포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나왔다. 그런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를 고향 집에서 통학했기 때문에 절반만 인천에서 다녔다고 말하는 게 맞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등교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다. 하루 통학 시간이 평균 5시간. 버스를 도합 네 번 갈아타야 했다. 내가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도시보다 대학이 더 크고, 도시사람들보다는 대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서 도시는 잘 보이지 않았다.

도시와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였다. 1980년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데가 제법 큰 출판사였다.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월간지를 서너 종 출간했고, 단행본 베스트셀러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서울에서 가장 세련된 지역인 여의도에 자리잡고 있었다. 의회정치와 방송의 중심지였고, 금융 관련 기업, 언론사 등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여의도는 국내 최초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의도는 서울의 맨얼굴이 아니었다. 최고급 의상에 정성들여 화장을 한 가면에 가까웠고 그것도 정면이 아닌 옆얼굴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20년 가까이 월급을 벌었다. 광화문으로 옮기면서 결혼을 했고, 신혼집 주소도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 삼청동으로 바뀌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는 명실상부한 서울 사람이 됐다. 이때부터 내 문학과 서울이란 대도시 사이의 마찰계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어느 정도 도시적 삶에 적응했지만, 밤에는 견디기 힘들었다. 낮의 내가 직장인이었다면 밤의 나는 시인이고자 했던 것이다.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 땅에 뿌리박은 삶이 도시적 삶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1)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오면서부터 그 집은 빈집이 되었지만
강이 그리울 때 바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강이나 바다의 높이로 그 옛집 푸른 지붕은 역시 반짝여주곤 했다
가령 내가 어떤 힘으로 버림받고
버림받음으로 해서 아니다 아니다
이러는 게 아니었다 울고 있을 때
나는 빈집을 흘러나오는 음악 같은
기억을 기억하고 있다

-줄시, 〈우리 살던 옛집 지붕〉 첫 연

2)

이곳에선 아무도 걸지를 않습니다
내쳐 달리거나 길바닥 위에서
쓰러질 뿐입니다

(중략)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느낌보는
가장 큰 죄인으로 몰립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 있으려 하다가
도시에게 당하고 말지요
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입니다

-줄시, 〈마지막 느낌보-산책시 3〉 1, 3연

1)은 1982년 데뷔작 중 하나이고 2)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0년대 초반에 발표한 것이다. 1)에서 원초적 공간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시적 주체가 2)에서는 도시의 음험한 정체를 알아버린 주체로 변모해 있다. 1)의 화자가 땅에 뿌리박은 세계에 대한 친화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땅의 아들’ 이라면 2)의 화자는 도시에 대한 반감을 넘어 도시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반도시적 참여 관찰자’ 다. 하지만 1)과 2)의 화자는 동일인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도시에 적응

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이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 무의식 중 일부일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땅의 마지막 아들딸이자, 아스팔트 최초의 부모가 되어야 했다. 땅의 마지막 자녀는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야 했다.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 형태에서부터 가치기준에 이르기까지 급변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속도에 적응해야 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눈을 파는 순간, 사회적으로 배제된다. 도시는 판옵티콘이었다. 하지만 도시인을 관리 감독하는 관제탑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시인은 자기 삶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도시가 제공하는 삶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수밖에 없었다. 수동적 주체였다. 도시인은 아직 시민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표현하는 자기-정치의 주체가 아니었다. 도시인은 전적으로 소비자였고, 도시는 전적으로 소비공간이었으며, 도시생활은 전적으로 소비생활이었다.

그래서 도시는 악이었다. 2004년에 발간한 네 번째 시집에 이르기까지 나는 도시를 부정했다. 도시는 하루빨리 탈출해야 할 디스토피아였다. 도시는 미래가 아니었다. 유토피아는 농촌이나 산촌, 어촌과 같은 비도시에 있었다. 비도시가 미래였다. 시골에서 도시 주변부로, 주변부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도시에 대한 성찰의 결과는 언제나 적의(敵意)로 귀결됐다. 그간 내가 펴낸 시집의 제목만 일별해도 시 세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에서 <산책시편>과 <마음의 오지>를 통과해 <제국호텔>에 이를 때까지 내 시의 미래는 도시가 아니었다. 첫 시집의 화자는 성년식을 치르는 낭만적 방랑자였고, 두 번째 시집의 주인공은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길도는 이방인이었다. 세 번째 시집은 아예 농업을 미래라고 상정하고 있으며, 네 번째 시집은 생태론의 극단까지 가 있었다. 네 권의 시집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면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돈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생명, 생명과 지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더 나은 세계는 도시 바깥에 있다.

1-2. 도시에서 발견한 생태적 상상력

산책과 부사(副詞)로 대표되는 느낌의 미학을 시적 전략으로 설정하고 도시에 대응한 것이 두 번째 시집 <산책시편>이다. 내 몸이 도시적 삶과 어긋나고 있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생태적 상상력과 만났다. 1991년 창간된 격월간 <녹색평론>이 결정적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인간과 도시, 국가, 문명을 생태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생태적 관점은 한마디로 탈근대론, 그것도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근대 극복론이다.

근대란 무엇이었던가.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 즉 이성과 합리를 앉힌 것 아니었던가. 물론 근대의 성취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성과 합리는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보편가치다. 문제는 근대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생태론의 제일 강령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구 근대는 자연에 대해, 다른 생명에 대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해 무례하고 오만했다. 지구는 오직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 아래 지구를 마음껏 사용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구 자원이 무한하다는 오판이었다. 목재, 석탄, 석유는 물론이고 물과 토양

(표토)도 결코 무한하지 않다. 인류는 물론지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호출한다. 굳이 호출한다는 표현을 쓴 까닭은 저 상호연관성이 새로운 발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 인류와 자연, 지구와 우주 사이의 상호연관성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공유해온 진리에 가깝다. 철도와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전근대 혹은 비근대 지역의 토착문화는 지금도 저 상호연관성을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상호연관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열의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부터 해방시킨다. 이제 인간의 위치는 새와 나무, 바람과 돌처럼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원의 차원으로 이동한다. 생태론은 상호연관성 외에 순환성, 총체(전일)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생태론의 눈으로 보면, 도시적 삶은 단절되어 있고, 순환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시는 공동체를 거부하며, 도시에서 에너지와 자원은 순환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같은 단절, 분산, 고립은 고스란히 도시에 사는 개개인의 불행으로 수렴된다. 다시 도시인 개개인의 불행은 도시의 불행으로 이어지면서 거대한 악순환을 지속한다.

도시를 악으로 규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몸’이었다. 나는 도시적 삶의 한 가운데에서 내 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낮과 밤이 분리되어 있듯이 몸과 마음이 두절되어 있었다. 문명과 내 몸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내 시는 감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감각은 제 자리로부터 심하게 이탈해 있었다. 어떤 감각은 과도하게 발달해 있었고, 어떤 감각들은 퇴화 직전이었다. 도시-문명이 내 몸 안팎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시각패권주의가 창궐하고 있었다.

에드벌룬에서 지하도 바닥에 붙은 양말 광고까지
이 거리는 소리친다 두 눈과 귀를 달아도
거리는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다
저 인구 시계로부터 어제의 교통사고 숫자까지
텔레비전은 물론 자명종까지
이 도시는 늘 외치거나 재잘대고 있다
저것을 떨리하는 그때가 죽음이다

-줄시, 〈이명〉 전문

감각의 실상을 살펴보면 도시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는 하루 종일 눈-시각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두 눈으로 산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문명은 매스 미디어는 물론 건물, 도로, 거리를 광고판으로 활용한다. 두 눈을 감으면 두 귀로 침투한다. 정보와 지식, 이미지가 시각을 통해 쉬지 않고 들이닥친다. 나는 도심지의 간판을 소리로 치환한다면 우리

의 고막은 순식간에 터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도시는 도시인의 눈에 주목한다. 우리의 눈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전광판이나 간판이 있다. 광고가 없는 곳은 도시인의 눈길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도시는 도시인의 ‘두 눈’을 채널로 삼아 도시인을 소비자로 살아가게 한다.

자본주의가 도시 전체를 광고판으로 변모시키는 사이, 그러니까 도시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자로 전락한 사이 도시인의 나머지 감각은 왜곡되거나 퇴화하고 말았다. 시각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상대적으로 제 기능을 잃고 말았다. 한마디로 도시는 감각의 감옥이 되고 말았다. 자연의 소리, 자연의 냄새, 자연의 맛은 도시로 들어오지 못한다. 굳이 설명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재환기해보자. 도시는 침묵과 고요를 추방했다. 위생 개념이 강조되면서 불쾌한 냄새는 실내 밖으로, 몸 밖으로 겨났다. 도시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음식은 공산품이다. 미각 세포가 공산품에 길들여져 원 재료의 맛을 맛 볼 기회를 차단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도시는 짧은 시간에 ‘자연’의 자리를 차지했고, 원래의 자연은 낯선 타자의 자리로 밀려나고 말았다. 자본주의 문명이 도시를 자신의 왕성한 서식처로 삼으면서 몸의 감각이 재편된 것이다. 그래서 도시는 악이었다.

두 번째 시집을 내놓고 난 이후, 나는 몸의 문제에 집중했다. 〈마음의 오지〉에서 드러나 있거니와, 농업이 박물관에 들어간 사태나, 카지노 자본주의가 광속으로 지구를 교란하는 상황이나,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거나, 한 치 앞 내 실존의 문제거나 이 모든 국면들이 내 몸에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몸의 위기는 감각의 위기였다. 나에게 미래는 잃어버린 감각들, 왜곡된 감각들, 불구화한 감각들을 하나하나 복원하는 미래였다. 몸을 되찾는 미래였다.

— 〈제17회 2003 소월시문학상 작품집〉 중에서

2. 도시는 과연 ‘악’인가

2-1. 우리는 시골로 갈 수 있을까.

네 번째 시집 〈제국호텔〉 이후 도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시골로 돌아가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진지해진 것이다. 은퇴와 낙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집단적 로망이었다. 부모 공양까지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아들딸만큼은 대학교육까지 시킨 다음, 도시를 떠난다는 것. 하지만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꿈이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거나

다달이 받는 연금이 두둑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장에 수억 대 이상의 잔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세대 대부분은 도시에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 그것도 양로원에서 홀로 근근히.

그래서 도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도시는 우리가 죽고, 미래 세대가 나고 자라 살다가 죽을 곳이었다. 도시가 엄연한 미래였다. 도시를 다시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에 도시에 대한 재발견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도시에서 죽는다

미안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는 모두 도시에서 죽는다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아이들도 도시에서 나고 자라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죽는다

한때 꿈꾸었다

막연하지만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일터에서 물러나면

늙어가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리라 믿었다

미안하지 않았고 당연했다

텃밭이 있는 자그마한 남향 전원주택

모란에 국화 대추나무에 감나무 향나무 소나무

개와 고양이 닭 오리 칠면조 흑염소에

꿀벌도 몇 통 아무렴 등나무 아래 평상

손바닥만하지만 사철 하늘을 다 담아내는 연못에다

꿈은 꿈이었다

우리는 도시에서 죽는다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천루보다 높다 해도

우리는 계곡이나 강기슭 별판이나 바닷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가

이 도시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어쩔 도리가 없다

농촌 산촌 어촌은 벌써 죽었다
 농촌 농업 농민 어촌 어업 어민이 다 죽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이상한 무서운 죽음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없을 사건이다
 땅과 들 바닷가와 섬을 모두 돈이 사버렸다
 땅과 이웃과 마을과 가축과 짐승과 하늘이
 모두 등기 문서로 통장으로 금고로 들어가 버렸다

돈이 게걸스럽게 땅을 사들이는 동안
 우리도 돈이었다 우리가 도시 안에서
 땅을 오직 돈으로 돈으로만 보는 동안
 우리는 땅에 뿌리내리는 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땅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혹은 언젠가는 돌아갈 줄로 믿었다
 흙과 땅과 집과 마을과 하늘이 늘 거기 있을 줄로 믿고
 마음 놓고 땅을 놓아버렸다 땅을 무시했다
 돈과 속도와 시스템과 정보와 네트워크에
 매료된 나머지 과거와 미래를 탕진한 나머지
 몸과 마음을 마음껏 소비한 나머지
 돌아가야 할 미래를 놓치고 말았다

—줄시 〈우리는 모두 도시에서 죽는다〉, 전반부

도시를 ‘악’의 화신이자, 그 화신의 거대한 소굴이라고 보던 시각이 어떻게, 왜 위와 같은 인식론적 전환을 일으킨 것일까. 원인은 다양하다. 개인의 노후 설계 문제가 아니다. 보다 큰 배경과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 폭발과 도시 인구의 증가, 그리고 미증유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초고령화다. 2006년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했다. 2100년 경이면 지구 전체 인구가 100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식량 무기화, 전쟁과 테러, 질병 등 지구적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단위 국가와 국제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저 지구적 난제는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종말론이 가시화될 것이다. 미래는 급속도로 작아질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권이나 기업,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개봉된 SF영화 <인터스텔라>에 관객이 몰리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스텔라>가 지구 인류의 종말 이후를 지구 정치 차원에서 상상하지 않고 가족과 물리학 차원으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대중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과 식량 고갈 사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2. 그렇다면 도시를 시골로 만들자

꿈은 꿈을 놓친 자리에서 다시 꿈이다
우리는 모두 도시에 죽는다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한다
도시와 도시 사람을 두루 살피 봐야한다
우리가 죽을 자리를 구석구석 들여다 봐야한다
이 도시에서 한 줄 의미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사람이다
당연하게 당당하게 의젓하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한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공감하고 연민하는 사람이라면
길은 있다 길은 얼마든지 있다

도시에 땅을 만들어내면 된다
도시를 마을로 바꾸면 된다 우리가 죽어갈
도시를 흙으로 땅으로 거듭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꿈을 잃지 않는 한 꿈은 희망이다
도시 경작을 넘어 도시간척이 꿈이다
옥상 공터를 넘어 도시간척이 미래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걷어내자
걷어내기 어렵다면 그 위에다 땅을 만들자
도시를 간척해 도시에다 땅을 만들어가자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에게 도로가 있다
 도시는 도로다 도처가 도로다
 도로가 우리의 길이다 도로가 꿈을 이루는 길이다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되찾아
 도로 위에 상판을 깔고 거기에 흙을 갖다 붓는 것이다
 교차로 위에 텃밭을 주차장 위에 과수원을
 한강다리 위에 임대주택 내부순환도로에 양계장을
 주요 간선도로에 양어장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얼마든지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다
 도시간척은 자연스럽고 떳떳한 최후의 사건이다

우리는 땅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땅이다 생명이다
 도시에 땅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다시 땅 위에 서는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웃이 생겨나고
 이야기가 생겨나고 곳곳에 마을이 생겨난다

도시에 이웃과 마을이 생겨나면
 사회가 강해진다 사회가 강해지면
 기업이 작아진다 국가 또한 작아진다
 기업과 국가가 작아지면 사회와 이웃이 커진다
 이웃과 마을이 더 커지고
 너와 내가 더 커진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야한다
 우리는 모두 도시의 땅 도시의 마을에서
 이웃과 살다가 죽어야한다
 다행스럽지 아니 한가
 우리는 가족과 이웃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다
 마침내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마을이 지켜보는 가운데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름답지 아니 한가
 우리는 모두 도시에서 죽는다
 텃밭이 있는 자그마한 남향 임대주택
 동사무소 가는 길에 개나리 진달래 모란 국화 매화
 학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백목련 사과 배 감나무 소나무
 마당에는 이웃집과 함께 닭 오리 칠면조에 흑염소까지
 공원 등나무 아래 평상에선 할머니 할아버지
 옛이야기가 술술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손바닥만한 옥상 연못에는 사철 구름이 다 담기고
 돌잔치 결혼식 집들이 금혼식 팔순잔치 장례식이
 흥성흥성 다 다시 도시의 마을로 돌아오고

—졸시, 〈우리는 모두 도시에서 죽는다〉, 후반부

3. 시민이 도시다, 도시가 미래다

3-1. 장소의 민주화, 관계의 재발견

도시는 가진 자들의 것이었다. 도시 정책 입안자, 도시 계획 전문가, 부동산 소유자 및 업자의 이해 관계가 뒤얹혀 도시를 만들었다. 정책 입안에서 결정, 공사 추진에서 완공, 사용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대부분 배제됐다. 도로, 관공서, 기념물, 광장, 공원, 녹지 등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위와 같은 ‘관행’에 의해 건설됐다. 각성하지 않은 시민들은 저 관행을 당연하게 여겼다.

도시의 인간화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960년대 후반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창했지만, 아직 한국사회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내가 몸담고 사는 도시를 누가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에 대해 그토록 민감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정작 (중앙) 정부와 정치의 산물인 도시, 경제 논리의 실물인 도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대상화되어 있다. 내 아파트, 내 건물의 부동산 관련 시세가 도시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차단하고 있다.

나는 도시가 되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장소의 회복이라고 믿고 있다. 장소는 인간에 의해 재구성된 공간이다. 일찍이 인문지리학이 발견했듯이 좋은 장소가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 좋은 공동체는 다시 좋은 인간을 만들고, 좋은 인간은 더 좋은 장소를 꿈꾼다. 이것이 장소-도시의 선순환이다. 그렇

다면 좋은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웃-관계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인가. 좋은 장소는 ‘작은 공유재’다. 도시농업, 마을도서관, 벼룩시장 등과 같은 공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그것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직결된다. 도시의 인간화, 즉 도시 재생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파머는 21세기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다섯 가지 ‘마음의 습관’ --상호 연결성 인정하기, 다름(차이)의 가치 존중하기, 긴장을 끌어안는 능력 키우기, 주체성 강화하기, 공동체 창조 능력 키우기--을 강조한다. 이중에서 공적 삶, 공적 영역과 관련된 지면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파머의 관찰에 따르면, ‘1차 장소’ 즉 공적 영역을 소멸시킨 주범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다. 상업이 이뤄지던 도시의 거리는 쇼핑몰이 흡수했다. 공원과 광장, 동네 서점, 재래시장과 같은 1차 장소는 정보사회와 결합한 개인주의에 의해 공공성을 잃었다. 만성화된 ‘경제적 공포’도 1차 장소를 무력화시킨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산책이나 모임을 줄여 일에 매달린다.

파머는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에너지인 공적인 삶의 쇠퇴는 결국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생활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동체의 지지가 없다면 개인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으로 전달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머는 “환대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복원”해야 공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낯선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민주주의를 위한 마음의 습관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나는 파머가 말하는 1차 장소, 즉 공적 영역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해한다. 우정과 환대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은 상호 연관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체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 졸고, ‘민주주의는 마음이다’ 중에서, 경향신문 2012년 4월 19일자.

도시의 미래는 인간의 미래이고 문명의 미래다. 문학적 상상력이 도시를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도시인이고 우리 삶의 현장은 언제나 도시다. 우리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구체적 현실이 바로 도시의 현실이다. 우리의 몸이 도시이고, 우리 마음이 도시의 마음이다. 도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미덕을 재건해야 할 무대는 다름 아닌 도시다.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한 녹색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구체적 장소도 도시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에 대한 감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곳곳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결론을 대신해 졸시 한 편을 인용한다. 사막-도시, 아니 인간과 문명을 재발견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모래와 모래 사이가 더 많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
사이가 더 많아서
모래는 사막에 사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다.

— 졸시, 〈사막〉 전문

내가 만난 마을 혹은 도시에 관한 기록들

함민복 (시인)

- 현재는 과거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과거가 현재에 작용한다.
영향과 작용이 순환하는 역사를 해석학자 가다머는
'영향과 작용의 역사'로 불렀다.-

위의 내용을 수용해, 과거에 내가 만나 기록으로 남겼던 마을과 도시에 대한
시를 통해 현재의 마을과 도시를 만나본다.

1. 선입견이 된 마을(60~80년대)

그샘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 야 따리 끈 입에 물고 삼짝 들어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지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밭에 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혹 풍겼지요.

위의 시는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바위라는 마을을 떠올리며 썼다. 문바위는 가구 수가 20여 호 되는 작은 마을이다. 내가 태어난 집은 마을 한복판을 흐르는 물도랑을 경계로 윗마을에 속했다. 그때의 삶은

60년대 대부분 농촌 마을이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고 있었다. 시에 샘을 상징적으로 차용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 있던 마을 풍경을 그려보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이웃집의 불빛이 더 잘 보였고 마을의 새벽은 고요해 인기척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샘물을 먹는 네 집이 다 초가집이었다. 그래서 요즘과 달리 지붕 색깔이 일년에 한번 씩 변했다. 초겨울이면 집들은 가을날 펼쳐지던 들녘의 누런색을 거둬다가 머리에 이었다. 초가집에 나무불을 때며 살 때라 집에 불이 나기도 했다. 담배건조실에 매달아 놓았던 동네종이 난타로 울렸다. 아랫마을 사람들까지 달려와 샘까지 줄을 서서 물그릇을 팔무리로 전달하며 불을 껐다. 불을 끄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렁이던 그날 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롭게도 불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을 대비해 물그릇들을 그대로 놓고 갔었다. 그 물그릇 중에는 쌀을 일 때 사용하는 이남박도 있었다.

문바위에 난 길들은 거지반 곡선이었고 그 길에 집들이 듬성듬성 늙은 호박처럼 매달려 있어, 문바위에는 골목길이 없었다. 김수영의 시 구절처럼 ‘방문 열면 바로 자연’인 집들로 구성된 마을이었다. 자연의 품속에 안겨 살아서인지 사람들은 유순했고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다. 생명들의 집인 물을, 지금처럼 파이프로 끌어다가 먹거나, 전화기로 주문해 먹지 않았다. 물을 머리카락이나 어깨로 경건하게 길어다가 먹어서였을까, 생명 끼리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주는 마음이 살아 숨 쉬는 시절이었다. 내 머리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자리를 잡은 것은 그때였다. 그 풍경은 내가 살아오며 여러 유형의 마을들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에 영향을 주며 작용했을 것이다.

씨네마 천국

큰집에 산 적이 있지요

장날이면 바깥 마당에 약장수 오고

가을이면 옹기장수 찾아와 집안 가득 옹기 쌓이고

인삼장수, 명태장수, 재봉틀 수리공, 도박꾼들,

우리집에 철새처럼 찾아 들었지요.

우리집은 크고 넓어

가설극장 패들 와 대문 닫고 쪽문 열면

안마당이 극장이 되었지요

영화 볼 돈 없는 애들 오동나무 타고

행랑채 넘어오고

그러다가 들키면 심통난 아이들

두꺼비집을 내리기도 했지요

나는 제일 좋은 자리 마당에 있는

우물에 기대 앉아

신영관의 칼썸 솜씨를 보았지요
 지금 그 집터엔 붉은 벽돌 복지회관이 들어서
 청년회 사무실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마을문고도 간판을 펼쳐놓았지요
 나는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
 매일 보며 살아 보이지 않던 고향 산봉우리들
 그윽이 바라다보았지요
 없어진 우리집 담장을 보듯 지붕을 보듯

‘너도 한 삽 나도 한 삽 모은 흙으로 잘 사는 새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라는 노래가 들어지고 역동성이 없다 하여, 새로운 새마을 노래(현재의)가 보급되었다. 마을은 스피커 방송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내가 이사 온 면소재지 동네도 마찬가지였다. 퇴비증산운동, 절미운동, 집단등교운동, 혼식분식장려운동, 돌만 낱아 잘 기르기 운동... 새마을기, 4 H기, 향우반기... 그 무렵 마을은 온통 운동과 깃발로 넘쳐났다. 자연발생적이던 공동체 의식이 정부 주도하에 인의적인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근면 자조 협동으로 뭉치면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집단적 희망에 마을이 들떠있었다. 일제시대 주민의 통제 및 전시동원체제로 이용되었던 반상회가 새롭게 부활되었다. 마을마다 반장과 부녀회장이 선출되었고 완장과 모자를 쓴 새마을 지도자가 자전거를 타고 바빠 움직였다. 마을주민들은 자동으로 견고해진 조직의 구성원이 되었다. 새마을운동 우수 마을이 선정되고 가수들이 위문공연을 오고 관급행사가 진행되며 집단적 경쟁의식이 싹텄다. 이에 힘을 얻은 정부는 새마을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싸리울을 밀어내고 시멘트 블록 담장을 쌓고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마을길도 넓혀 콘크리트길을 만들었다. 이때 마을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NEW- 새로움뿐이었다. 마치 새로운 것은 모두 합리적이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초가지붕 위 둥근 박 덩어리와 겨울이면 수북이 쌓인 눈이 만들어 놓던 곡선이 일제히 사라졌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못한 참새들이, 초가지붕 추녀 밑 굴을 찾지 못해 향나무에서 오글오글 노숙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개인주의가 태동한 것도 그즈음이 아니었나 싶다. 마을을 바꾸듯 개인의 삶도 확 바뀌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농촌생활을 접고 대한뉴스에서 접한,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또 경운기와 손수레가 보급되고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의 사용이 대중화 되어, 농사일이 한결 수월해지자 소작농들 뭍으로 돌아갈 땅이 없어졌다. 급기야는 품을 팔 곳도 없어지면서 상대적 빈곤을 절실히 느끼는 계층이 생겨났다. 이들도 하나둘 농촌에서 떠밀려나 도회지 외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마을엔 빈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하생활 3주년에 즈음하여

- 어머니. 2

빛으로 잔 커튼을 치고 싶습니다
불을 켜야 불을 켜지 않은 방보다 어두운 방은
좁고, 나이가 들어, 어머니 등이 따듯합니다
우러러 들리는 위층 하늘에는 정육점이 삽니다
메주처럼 조용한 어머니는 가는귀가 먹어
하늘에서 들리는 삼겹살 써는 소리는 못 먹고
갈비 자르는 소리만 먹습니다
어머니 귀가 통이 커졌습니다
동태 꿰착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화장실을 다녀갔다는 대변者
펌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도 저 지겹게 정들은 소리들이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술가락입니다
동거자 어둠은 자신을 색득하게 보려고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젖은 성냥갑인가 봅니다
평지에 살고 싶은 만큼 대가리를 날려 부딪쳐보고
살점이 뭉청 떨어지도록 머리 비벼보아도
빛은 못 벌고 골만 부러집니다
부러진 골은, 머지않아 영원히 지하생활자가 될
어머니를 3년 동안 전지훈련시켜 드렸습니다
노상, 밤이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은
빼앗는 것처럼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답안을 검산합니다
그러다 벽시계로 날이 흰하게 밝아오면
나는 또 눈부신 빛의 계단을 오릅니다
겨울 잠바와 여름 바지로 짝 빼입은 가을 옷을 입고
발자국소리가 저벅저벅 어머니 가슴을 밟습니다
빛으로 찢 커튼을 치고 싶습니다

서울살이는 녹녹치 않았다.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이층 가건물에 자리를 잡았다가 상계동으로 이사를 했다. 주인집과 한 평도 안 되는 부엌을 공동으로 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 줄을 서야 했다. 집 주인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급하면 할 수 없이 부엌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상계동 집들이 철거되고 홍릉시장 상가 지하창고에 딸린 방 한 칸으로 이사를 했다.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이리 많다니! 시골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도시에서는 현실이 되기도 했다. 어느 휴일 대낮. 전깃불을 켜고 벽지에 피어난 곰팡이꽃을 지우다가, 나와 같은 사람이 벽 너머 지하에도 있을 것 같아 벽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어둠을 팔 수는 없을까, 빛을 켜듯 어둠을 켜는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 교대근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자야하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무상으로 공급해줄 수는 없을까 쓸 데 없는 상념이 머리에서 콩나물처럼 자라기도 했다. 지하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빛의 계단을 오르면 지상에서는 신령스러운 산은 부동산 밖에 없다고, 민을 건 부동산 밖에 없다는 신흥종교의 교세가 대단했다. 이미 방방곡곡 시골 마을까지 그 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땅은 더 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성의 모태가 아니었다. 투기의 대상이었고 자본의 접전구역이 되어 있었다. 여성성의 모체인 땅이 타락하자 도시에서는 여성의 성을 팔고 사는 저급문화가 만연했다. 무엇이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황금만능주의에 감염된 도시와 마을은 밤에도 번쩍였다. 바야흐로 자신의 속을, 내장을 꺼내 이마에 노골적으로 붙인, 간판이 난무하는 건물들처럼 천박한 정신이 도시에 안착했다.

2. 긍정의 마을(90년대)

자본주의 사연

성동구 금호 4가 282번지
네 가구가 사는 우편함

서울특별시의료보험조합
한국전기통신공사전화국장
신세계통신판매프라자장우빌딩
비씨카드주식회사
전화요금납부통지서
자동차세영수증

통합공과금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중계유선방송공청료

호텔소피텔엠베서더

통합공과금독촉장

대우전자할부납입통지서

94토지등금조정결과통지서

이 시대에는 왜 사연은 없고

남부통지서만 날아오는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절실한 사연 아닌가

서구의 동구권이 무너지자 자본주의체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노래하기에 바빴다. 동구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자동으로 해결 되는 것은 아니었다. 빈부간의 소득격차,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 등, 동서이 테올로기의 대립이라는 거대담론에 묻혀 있던 제반 문제들이 오히려 전면적으로 부상했다. 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들을 써 〈자본주의의 약속〉이란 시집을 냈다. 한 개인의 시집으로 자본의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은 애초부터 없었다. 단지 그 흐름이 과연 옳은가, 라고 물음을 던져 주위를 환기해보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대전엑스포

자연에서 가장 멀리

도망친 것들의 잔치

利의 극점

햇살 맑은 아침

소 귀에 경을 읽고 싶다

利를 향해서만 밥을 먹을 수는 없다

화두를 하나 잡고 끝없이 부정해 나아가며 부정을 통해 도에 이르는 수련법을 간화선이라 했던가. 나는 자본주의란 화두를 잡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전착해 이를 끝없이 들춰내야 한다는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이런 작업이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문제는 문제의 주체인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이 다가왔다. 결국 인간성의 회복 없이는 어떠한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양심을 가두고 있는 한, 문제점을 임시로 해소시킬 수는 있어도 해결할 수는 없음을 절감했다. 문제는 다시 사람이다. 양심적 삶의 복원이 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 변화되지 않고 항상 보존되어 있다는, 인간의 본마음인 사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에, 인간의 본디 선한 마음에 문제점을 호소해볼 수밖에 없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들을, 인간의 본디 선한마음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글로 옮겨보자고 방향을 틀었다. 그러자 삭막하게만 펼쳐지던 도시에서의 삶도 한없는 긍정의 세계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쓴 산문 한 편을 아래에 소개 한다.

길의 열매 집을 매단 골목길이어

내가 살며 만나온 골목길 풍경들이 저요! 저요! 손들며 다가온다.

담장 위 장미가 붉은 혀를 깨물고 있다. 비누 냄새 풍기는 하수도 물이 길 따라 흘러내린다. 물소리도 길 따라 휘어지며 흘러내린다. 저녁 식사 시간 골목길은 음식 냄새들의 유원지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뜯고 있던 고양이가 도망간다. 전봇대에는 가스 배달, 중국집 전화번호 스티커가 신속히 붙는다. 한때 골목대장이었던 아이가 가장이 되어 아파트 경비하러 급히 내달는다. 처녀가 힐끗 뒤돌아본다. 사내의 발짝 소리가 멈칫한다. 두부장수가 리어카를 세워 놓고 더 좁은 골목길로 종을 울리며 들어가자 붉은 장화를 신은 비둘기 분대가 후드득 리어카에 낙하한다. 아침 일곱 시, 더 넓은 골목길에 가 살기 위하여 직장 나가는 샐러리맨들의 발짝 소리가 발짝 소리에 밟힌다. 얼어붙은 길 위에 던진 연탄재가 부지직 소리를 낸다. 허리가 낮처럼 흰 할머니가 숨이 찬지 허리는 펴지 못하고 고개만 들고 숨을 고른다. 가로등이 켜지고 나방 그림자가 벽에 부딪친다.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골목(공덕동, 청량리 시장, 상계동, 금호동, 전농동……)에 살아본 내게 있어서 골목길의 의미는 그리 만만치가 않다.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베르누이의 정리(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양=유체의 속도/관의 단면적)가 떠올라 걸음을 멈추곤 했다. 가던 길이 좁아진다고 해서 살아가기에 대한 생각의 양이 적어지지 않는다. 골목길에 접어들면 마음도 마음의 골목길로 접어든다. 골목길에서의 생각은 타이트하다. 구체적이다. 현실적이다. 넓은 길을 오며 이 생각 저 생각 들던 것이 길의 깔때기, 골목길에 접어들면 압축되고 요약된다. 원래 삶은 살아가는 길의 모양을 닮는 것인지 모르겠다.

골목길을 지날 때면 ‘골목길은 휘어지기를 즐긴다’는 오규원 시인의 시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방향을 선택 전환한다는 것 아닌가. 어느 선택의 시점이든 그 순간 생각은 여느 때보다 농밀하다. 농밀하게 생각하기를 권하는, 삶에 대한 긴장감을 잃지 않

게 만들어 주는 골목길은 사색의 대가다.

건축가 이일훈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 중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이 있었다. 고건축물에서 현대 최첨단 건축물까지 다양한 건축물 설명을 듣는 도중 느닷없이 한적한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시골 방앗간 풍경이 떴다. 이 선생은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방앗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완벽한 건축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장식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양철 지붕만 올려놓았지만, 여기 어디 버릴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가슴이 찡했다. 나도 어느 골목길에서였던가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아 보았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나도 완벽한 골목길을 만났었다. 그 골목길은 밥을 먹고 있는 방이,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이, 달팽이만한 초인종 달린 대문이 양쪽으로 잇닿아 있었다. 이 골목은 담장이 없어 길이 담장이구나. 길이 담장이 될 수 있다니!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한 담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완벽한 담장을 가진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세운 이 길담장과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 길담장 체험 후 나는 웬지 모르게 골목길이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이 어떤 길인가!

노동을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던 가장이, 아내와 자식새끼들 생각에 머리채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바로잡던 길 아닌가. 만삭의 아낙네들이 한 손에 남편과 자식새끼들에게 먹일 시장바구니를 들고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해 걷던 길이 아닌가. 철없는 아이들 즐겁게 뛰어노는 웃음소리 까르르 까르르 흘러넘치는 길이 아닌가. 밥숟가락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 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길 아닌가…….

“한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길에 봉착했다.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골목대장이나 하려다가…….”

골목길을 폄하하지 마라. 막다름의 힘을 아는가. 물에 빠진 놈은 더 밑으로 내려가 바닥을 차고 나와야 한다지 않던가. 이제 막다름에 이른 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구불구불 흰 골목길의 탄력으로, 골목길의 힘으로, 길의 거품 하나 없는 골목길이, 길의 뿌리인 골목길이, 길의 열매인 집을 매달고 있는 골목길이, 시장통의 비린 생명력을 지닌 골목길이, 산동네의 가난이란 위치에너지를 가진 골목길이, 공장 지대 교대만 있을 뿐 꺼지지 않는 불빛의 골목길이, 한 지붕 아래 사는 아파트 통로 그 수직의 골목길이,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할 길을 번쩍 일으켜 세워야 할 시기인 것이다.

3. 부정의 마을(2000년대)

김포평야

김포평야에 아파트들이 잘 자라고 있다

논과 밭을 일군다는 일은

가능한 한 땅에 수평을 잡는 일

바다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수평에서의 삶

수천 년 걸쳐 만들어진 농토에

수직의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농촌을 모방하는 도시의 문명

엘리베이터와 계단 통로, 그 수직의 골목

있었는가 바벨탑

보라 한 건물을 쌓아 올린 언어의 벽돌

만리장성, 파리 크라상, 던킨 도너츠

차이코프스키, 노바다야끼

기와불사하듯 세계 도처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이진법 언어로 이룩된

컴퓨터 데스크탑

이제 농촌이 도시를 베끼리라

아파트 논이 생겨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 논을 오르내리게 되리라

바다가 층층이 나누어지리라

그렇게 수평이 수직을 다 모방하게 되는 날

온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탑이 되고 말리라

김포평야 물 핀 눈에 아파트 그림자 빼곡하다

나는 긍정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려 노력하면서 그 대척점으로 떠오르는 부정의 세계를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그 세계는 그 세계 나름대로 충실히 그려내는 것 또한 긍정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새마을 사업과 신도시 건설만큼 급진적으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킨 사건은 없다. 그렇게 파격적인 길을 걸은 데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지만,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들을 사업의 성과로 마냥 덮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중 문명세계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주시했다.

사람들은 지하에서 딱딱한 것과 뜨거운 것을 깨낸다. 딱딱한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닮은 수직의 건물들을 쌓아 올린다. 부드러운 것은 수직화 되지 않는다. 또 뜨거운 것을 에너지화해 속도를 얻어 낸다. 나는 이 두 행위를, 표면으로 드러난 문명화의 대표적 현상으로 본다.

도시에서의 삶은 수직 지향적이다.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커 가고 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층 아파트가 생겼다. 반면에 농어촌에서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 모든 농지는 수평 지향적이다. 논이 그렇고 밭이 그렇다. 농부들은 보다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끝없이 경사진 땅을 까 내려 평평한 땅을 넓혀 왔다. 또한 어촌의 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다 그 자체가 수평 아닌가. 파도가 높이 일어 수평이 깨지면 어부들은 일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생산지가 절대 부족해진다면 농어촌도 수직 지향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논도 하나의 건물이 될 것이다. 수십 층의 고층 논이 생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며 농사짓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어촌도 바다 속으로 빛을 끌고 들어가 바다를 층층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 세월이 현실로 다가오면, 여유롭고 평화롭기까지 한 농촌의 골목길도 도시 골목길을 닮게 될 것이다. 진도의 아름다운 돌담 골목길이 도시 골목길을 모방하게 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현상 너머에 있다. 신성성에 대한 도전의 결과로 언어가 나뉘지게 되었다고 경전은 전한다. 이렇게 나뉜 언어들을 인간들은 이미 하나로 통합했다. 이진법 언어로 작동되는 컴퓨터가 그 언어다. 컴퓨터 데스크탑이 제2의 바벨탑인 것이다. 컴퓨터가 완성한 인터넷은 거대한 수평의 탑이다. 우리는 전 세계와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 이 탑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탑을 선악 분별의 장으로 삼기보다 개인의 이해타산을 따져보는데 더 유용한 장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정신의 방향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이 우주적 삶에 조화를 깨드리고 있음을 깨닫고 처절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래는 생각보다 더 짧아질 것이다.

4. 현실의 마을 (2010년대)

서울 지하철에서 놀랐다

1

열차가 도착한 것 같아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스크린도어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민망하여 별로 놀라지 않은 척 주위를 무마했다
스크린도어에, 옛날처럼 시 주련(柱聯)이 있었다
문 맞았다

2

전철 안에 의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 귀에 청진기를 끼고 있었다
위장을 둘러보고 갈빗대를 두드려보고
노동자를 들여다보던 옛 의사를 접고
가운을 입지 않은 젊은 의사들은
손가락 두 개로 스마트하게
전파 그물을 기우며
세상을 진찰 진단하고 있었다
수평의 깊이를 넓히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마을은 스마트폰 속에 있다. 이 마을의 길은 전파다. 이 마을에는 집과 방을 만들 수 있는 영토가 무량하다. 이 마을은, 버튼 하나로 전출입이 자유롭다. 이 마을에는 없는 게 없지만 자체 무게가 없어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다. 이 마을에는 범죄신고 센터가 있고 우체국도 있다. 이 마을에는 담장도 있고 우물도 있다. 주문하면 이 마을에서 물이 배달되어 온다. 이 마을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소유할 수도 있으나 완벽하게 소유되지는 않는다. 이 마을은 전파공동체이다.

물보다 커다란 섬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섬이 물보다 커지는 순간, 섬은 물이 되고 물은 섬이 된다. 전파공동체 마을은 물인 현실의 섬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스마트폰까지 출현 처를 넓히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스마트폰 속 마을의 세계는 ‘내가 나비 꿈을 꾸 것인가? 나비가 나를 꿈꾸고 있는가?’라는 장자의 호접몽을 소화해낼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 속 마을은, 보들리야르가 말한, 시뮬라르크(이미지, 기호, 가상세계)가 현실을 지배한다는 설을 증명해주고 있다. 아니, 현실이 가상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희망처럼 받아들여야 할 판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스마트폰 속 마을은 거대해져 있다. 스마트폰 속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 그러한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점점 터로 현실이 존재하는 듯도 하다. 쓸쓸한 일이지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 마을은 이렇게도 융성하였고 번성하고 있는가! 번창하고 있는 마을이라 해서 다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이런 현상에 대해 궁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마을 자체가 아닌 이 마을체계를 연구해보면 현실 속 마을에 적용해볼만한 교훈들이 적잖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속 마을에는 중심이 없다. 모두가 중심이고 모두가 중심이 아니다. 항상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고 이 참여자들에 의해 수시로 마을의 중심이 움직여 고정된 중심이 없다. 들뢰의 리좀(중심이 있는 나무의 줄기가 아닌 중심이 없는 뿌리의 줄기)이란 말이 그럴듯하게 통용될 듯한 마을이다.

스마트폰 마을에는 공유개념의 창고들이 발달되어 있다. 누구나 작은 창고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창고에 기억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허락된 창고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마을에서는 모든 일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

5. 미래의 마을

꽃봇대

전등 밝히는 전깃줄은 땅속으로 묻고

저 전봇대와 전깃줄에

나팔꽃, 메꽃, 등꽃, 박꽃..... 올렸으면

꽃향기, 꽃빛, 나비 날갯짓, 벌 소리

집집으로 이어지며 피어나는

꽃봇대, 꽃줄을 만들었으면

‘세계는 그 신비의 내밀성 속에서 정화의 운명을 바라고 있다. 인간이 보다 좋은 인간의 싹이며 노랑고 무거운 불꽃이 희고 가벼운 불꽃의 싹인 것과 같이 세계는 보다 나은 세계의 싹이다.’ 시인이며 철학자인 가스통 바슐라르의 글귀를 믿어보며, 마음속으로, 꽃향기를 발전해 이웃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을, 한 도시를 꿈꿔본 시다.

현상계의 모든 마을은 우리 마음속의 마을을 닮을 것이다. 마음속의 마을이 아름다워지면 현상계의 마을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현상계의 마을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첨부.1) 산문 하나

그 샘물줄기는 지금도 솟고 싶을까

커다란 향나무 아래 바가지로 떠먹는 샘이 하나 있었다. 그 샘에는 솟아오르는 물보다 떨어지는 참새 울음소리가 더 가득 고여 있었다. 그 샘물을 떠먹고 살던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외삼촌도 종수 아버지도 산속에 들었다. 나를 임신하고 갈증을 유난히 느껴 그 샘 고드름을 많이 따먹었다는 어머니는 틀니를 한 지 수십 년이 되었다. 어머니를 뵈러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문바위 고향집에 가 보았다. 종수네 집은 허물어졌고 외갓집과 작은집은 흥가로 변해 있었다. 그 샘물은 없었다. 그러나 그 샘물이 있던 터에서 내 유년의 기억들이 솟아 찰찰 넘쳐났다. 네 집이 샘 하나에 웅기종기 매달려 살던 일이 색득하게 떠올랐다.

작은집 형하고 얼음이 팡팡 언 냇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얼음이 쨍쨍 울어 겁이 났다. 투명 얼음장 밑을 느릿느릿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형을 불렀다. 형이 물고기 위 얼음장을 도끼로 내리쳤다. 얼음장 전체가 내려앉을 듯 짹 하고 금이 갔다. 도끼뒤통수를 맞은 얼음장 부위가 허영게 부스러져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다. 형이 도끼날로 얼음을 깨고 손으로 건어냈다. 기절한 붕어가 떠올랐다. 나는 땡땡이 끈을 짜 만든 종다래끼에 붕어를 담았다. 고기를 기절시켜 잡는 ‘파당’을 계속 놓아 피라미도 잡고 구구락지도 잡았다.

겨울 짧은 해가 수리산에 걸리고 한 집 두 집 군불 때는 연기가 굴뚝에서 올랐다. 빨리 돌아오는 봉화 신호라도 받은 듯 형이 서둘렀다.

“가자. 큰어머니 메밀묵 쪄는 날이다.”

집으로 돌아와 쇠죽가마솥에 불을 땀다. 쇠죽가마솥이 눈물을 흘리고 외양간에서 소가 위낭을 달랑달랑 흔들었다. 여물 익는 단내가 집안에 퍼졌다.

손님이 나타났다. 조그만 몸 까불며 삭정이 담장을 넘어와 수챗구멍을 기웃거리는 굴뚝새다. 굴뚝새는 푹푹해 뒷에 걸리지 않아 새 잘 잡기로 소문난 작은집 형도 잡아본 적이 없다. 굴뚝새가 날아가고 땅거미가 내렸다. 눈동자가 커지고 바빠졌다. 우물가 향나무에서 짹짹거리던 참새들이 누구네 집 처마 밑으로 잠자리 들어가나 잘 살펴 놓으란 작은집 형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웃에 사는 외갓집 식구들과 작은집 식구들을 부르러 갔다. 발에 쌓여 있는 눈 때문에 길이 험했다. 호랑이 앞잡이라는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어도 무섭지 않았다.

맛있게 익었다며 살얼음 서걱서걱거리는 동치미를 든 외숙모님 앞세우고 외갓집 식구들이 왔다. 작은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먼저 문을 열고 총각무에 찢 고구마를 든 작은집 식구들도 뒤따라 왔다.

작은어머니랑 외숙모가 부엌으로 나가고 누이들이 상을 펴고 작은집 형이 숨 혈떡이며 뛰어갔다 와 호야등 하나를 더 밝혀 달았다. 얼음을 깨 잡은 물고기 조림에 막걸리 한 주전자 먼저 상에 차려지고 작은아버지, 외삼촌, 아버지가 술을 드셨다.

“아랫마을 종구가 또 돌아왔다네유.”

“작년에는 안 돌아왔었남. 고구마통가리에 고구마 떨어져 까꾸로 냉겨박혀 끄낼 때쯤이면, 개, 또 떠날걸. 서울 가 기술 배워서 자수성간지, 뭇시진 해 금의환향하겠다고 편지 써놓고.”

“그래도 추운디 객지에서 고생 앓고 고향에 내려와 고구마라도 파먹는 게 부모 맴이야 팬치유.”

어른들 말쑤이 이어지고 쟁반 가득 묵이 들어오고 작은엄마가 켜 손놀림으로 묵 채를 썰고 외숙모가 종종종 도마질 소리를 내며 김치를 잘게 썰고 한 그릇 두 그릇 어머니가 깨소금을 치고 시큼한 김칫국물을 부으며 묵을 말고 부엉이가 울고 밤이 깊어가고…… 건너 마을 누가 눈에 흘려 밤새 고생했다는 이야기에서 텅텅한 막걸리 냄새가 나고…… 찐 고구마를 동치미에 곁들여 먹고 점심에 김치죽을 짜게 먹어서 그런지 목마르다며 누이들이 바가지 샘으로 고드름을 따먹으러 가고 그새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밤이 더 깊어 가고……

작은집, 외갓집 형들과 참새를 잡으러 가는 길에 눈이 폭설로 바뀌었다. 손전등 불빛 가득 나 비뚤처럼 눈송이들이 쏟아졌고 앞서 가는 작은집 형은 눈으로 만든 사다리를 어깨에 걸머메고 걸었다. 토끼털로 만든 귀마개에 쌓인 눈이 녹아 귓바퀴에 물기가 흘렀다.

쉴!

형들이 조용조용 손전등으로 이영을 두툼하게 얹은 종수네 집 처마를 훑어 나갔다. 그러다가 구멍을 발견하면 외사촌 형들이 허공에 사다리를 세워 지탱하고 작은집 형이 손전등을 구멍에 비추며 올라갔다. 불을 탄 곳에 비추면 새가 날아간다고 내리는 눈 때문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하면서도 구멍에서 불빛을 떼지 않았다.

새들은 잘 잡히지 않았다. 내리는 눈에 주위가 환해 참새들이 호로록 호로록 날아갔다. 작은집 형이 쥐를 덤석 움켜잡아 깨물리며 미끄러운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다. 새를 매달려고 가지고 다니던 새끼줄을 버렸다. 형들은 눈이 많이 내리니 내일 토끼사냥을 가자고 하며 새를 잡지 못한 서운함을 달랬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아 내리물기만 하면 굴러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작전을 짜고 사촌형들이 눈발 속으로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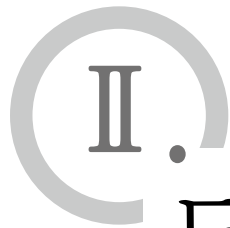
그날 밤 토끼몰이를 간다는 말에 신이 나 얇은 잠을 자는 내 귀로 눈 쌓인 소나무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서너 번 들렸다.

그샘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변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파리 끈 입에 물고 살짝 들어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변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지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이 미나리밭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양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

— 시「그 샘」 전문

제9회
도시인문학
세미나



도시와 마을을 보는 문인들의 상상력

● 토론문

시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 저 도시도 나를 기억하는가

문계봉 (인천작가회의 회장)

촌놈, 도시를 만나다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내게 있어 인천이란 공간은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전원적 성격의 마을 이미지를 동시에 환기시킨다. 유년시절 내가 살던 서구(당시에는 북구)에는 품앗이와 각종 계, 두레 등이 온존하던 전형적인 개발 직전의 농촌의 모습이었다. 양조장이 있었고, 신작로가 생기던 그때 어린 소년들의 섭생과 놀이는 말 그대로 ‘수렵 채집’과 연동되어 있었다. 칫뿌리를 캐고, 과일 서리를 하고, 여름이면 개천에 독을 막아놓고 물놀이를 했고, 개구리와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먹었다. 일 년에 서너 번 개울가 외따로 떨어져 있던 상여집에서 상여가 꺼내져 조립되는 것을 일상처럼 바라봤던 시절이었다.

그때의 마을이란 엄마의 품과 같이 편안하고 포근한 ‘모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도시의 풍경들을 경험하지만,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중학교(당시 남구 간석동에 위치한 상인천 중학교) 주변의 풍경도 내가 살던 서구와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통학하는 동안 버스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름 냄새 풍기던 너른 논밭과 과수(果樹)들은 개발되기 시작한 내 고향 마을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인천이란 공간에서 ‘도시’를 경험한 것은 도심지 동인천에 소재한 고등학교(제물포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질풍처럼 흐르고 노도처럼 밀려온 사춘기의 정서를 갈무리해야 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모교 근처의 풍경들은 비로소 소년의 가슴에 서구 석남동의 전원적 풍광과는 다른 낯설면서 신선한 정서를 심어주기 시작했다. 게다가 모교 앞으로 부채꼴로 펼쳐진 여학교(인성, 인일, 인천여고 등)들과 다만 훌쩍 넘어가면 만날 수 있었던 자유공원과 인천항, 드넓은 바다의 풍광들과 차이나타운의 이국정조들은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년의 가슴을 격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당시의 ‘그것들’이 내가 갖고 있던 ‘마을’로서의 인천에 대한 감수성을 도시적인 그것으로 전환시켜준 유력한 계기였음을 나는 의심하

지 않는다. 지금도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찾던 양키시장의 술집과 술기운을 다스리며 개똥철학을 설파하던 북성동 포구와 연안부두와 월미도의 밤바다를 잊지 못한다.

문학청년의 감수성, 도시를 만나다

이러한 감수성은 대학(신촌 소재 대학)에 입학하면서 확대재생산 되기 시작하는데, 성인이 되어 드나들기 시작하던 각종 술집과 레스토랑과 카페의 문화가 환기하는 정서는 문청(文靑)의 여물지 못한 감상과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켰고, 세기말이 아닌 시대에 살면서도 세기말의 퇴폐와 무너짐과 가끔 스스로를 향한 장한 다짐과 시대에 대한 비통과 무정형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문학에 대한 열망들 속에서 흥역을 앓게 만들었다. 성년의 문턱을 넘은 청년에게 도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정서적 배설을 허용하는 해방구였다. 그렇게 만난 도시의 다양한 얼굴들은 때로 시대를 고민하는 푸른 신념들의 은밀한 회합을 지켜보기도 했고, 머잖아 필연적으로 만날 신산(辛酸)한 세월을 떠올리게 했으며 가끔은 떠나는 애인의 등 뒤를 보며 눈물짓게도 했다. 그렇게 나는 도시 속에서 깨닫고, 상처입고, 결심하고, 상상하며 이후의 삶을 조형하기 시작했다. 나의 문학적 감수성과 시적 상상력을 그렇게 도시 속에서 여물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청년 시절에도 나는 도시 인천을 기억했고, 인천을 ‘디엃으며’ 인천을 주유했다. 20대 문청(文靑) 시절, 채성병 시인이 운영하던 카페 ‘시랑(詩廊)’을 드나들며 알게 된 인천 문단의 선배들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신포동 미미집, 백향아리 등의 술집과 은성다방을 대낮부터 찾아들며 문학적 감수성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 때 만났던 선배 중에는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폭음의 후유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 당시 30대 청년이었던 김윤식 선배(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백발이 성성하다. 조우성, 정승렬, 김학균, 랑승만, 손설향 등 시인들과, 김양수 문학평론가, 정순일 화백, 김구연 아동문학가 등등은 그 당시 주점 말석(末席)에 앉아있던 나에게 술을 따라주셨던 선배들이다. 그 당시 문화예술인들의 상당수가 도심인 신포동 일대를 동선으로 하여 자주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듯 도시는 문학청년이었던 나에게 사람과 아지트와 이야깃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했고, 도시가 드리우는 그러한 낯설면서 익숙한 정서 속에서 나의 시적 감수성은 여물어 갔다. 내 시와 글들의 모태는 도시였던 것이다.

사라지는 마을, 훼손된 도시를 위한 레퀴엠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내가 알던 도시의 거리와 건물들도 이제 나만큼 나이를 먹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그 ‘도시’를 기억한다. 하지만 내가 알고, 나를 알고, 우리가 살았던 바로 그 마을과 도시들이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내 추억마저 사라질까 두려워진다.

정거장은 어김없이 차를 세웠다. 62번 버스는 나를 재빠르게 뺏어냈고, 나의 발은 자유공원 쪽으로 길을 잡았다. 문구용 칼로 새긴 문신만큼 영성하고 그 칼날 끝에 묻어나던 핏물처럼 선명한 10대의 기억이 지하도 입구에서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와 더불어 나이를 먹은 퇴락한 역사(驛舍)의 외진 골목 뒤에는 피범벅인 침과 함께 흩뿌려진 여물지 않은 치기(稚氣)가 아직도 웅크린 채 담배를 물고 있을까? 낮익은 거리마다 들어찬 낮선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남근(男根) 같은 건물들…….

거리에서 주워든 기억들은 방심한 가슴에 작은 물질을 내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것. 그 거리를 벗어나면 채소의 잘린 꼭지처럼 하찮게 버려지는 것. 기억에 대한 마음의 기율기란 늘 그런 것이다. 그 기율기만큼 경사진 언덕을 터덜터덜 걸어서 홍예문을 통과할 때, 부두에 정박한 화물선 마스트 위로 부유했던 오후의 해가 도넛처럼 걸려있었다. 오후 4시 35분. 사진작가 이영욱의 ‘인천사진아카이브 연구소’ 개소식에 도착. 내 발은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문제봉, ‘익숙한 거리에서 기억을 줍다’

오래 전 당신은 자주 나를 찾았다. 헝클어진 머리, 무더진 바지주름, 구겨진 은하수 담배, 세련된 디자인의 성냥갑과 함께. 비 내리거나 눈 내리거나 혹은 자유공원을 배회하던 심심한 바람이 월미도 쪽으로 방향을 틀고 흐르다 문득 거리에서 만난 당신의 무른 감성, 그 숭숭 뚫린 빈틈을 헤집고 들어올 때, 그때 당신은 어김없이 나를 찾았지. 항상 당신보다 늦게 나타나던 올림포스 관광호텔 카지노 딜러, 당신의 애인에게서 풍겨오던 알싸한 삼푸냄새, 그녀를 기다리며 종이 위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던 당신의 표정, 떨림, 숨소리, 간혹 내쉬는 한숨……. 기억한다. 어느 봄날, 당신의 손끝에서 오래 머물던, 여느 때보다 많았던 메모지들. 갑자기 날카로운 미늘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낚아채던, 그 종이 위의 자음과 모음들. 한참을 앉아있다 비틀, 일어서며 길게 내쉬던 한숨, 떨림,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당신의 마지막 표정, 기억한다. 신포동 백제호텔 레스토랑,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 테이블, 카운터를 등진 안쪽 첫 번째 의자였던 나는.—봄날, 우연히 그곳에 들다

그는 본다. 폐건물의 추한 얼굴과 혹은 당당한 얼굴과

분노처럼 빠져나와 제멋대로 엮히고설켜 철근들과

밝힌 비스킷처럼 조각난 콘크리트 구조물과

뿌리 뽑힌 나무들과 사라진 언덕과

떨어져 흩어진 개나리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개나리아파트’와
 동쪽에서 끝끝내 빛을 내지 못하고 사그라진 ‘동광맨션’과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리석 계단과
 무너지는 담벼락을 인간힘을 다해 움켜쥔 담쟁이 넝쿨과
 더 이상 그 누구의 몸도 욕(浴)하지 못할 사라진 목욕탕과
 새끼를 안은 채 먼지를 덮고 누운 곰 인형 가족들과
 병아리들의 변색된 ‘병아리 그림’들과
 살아생전 당당한 의장을 자랑했던, 그래서 더욱 초라한 물골의
 은행과 병원과 뷔페와 예식장과 학원과 주유소의 속살들과
 버려진 아파트 내부의 검버섯 같은 곰팡이들과
 그 위에 보색대비로 피어난 붉고 노란 열한 송이의 꽃들과
 누군가가 눌러주길 포기하지 못하는 빈방의 스위치들과
 열어줄 사람도 닫아줄 사람도 없어 외로운 문들과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공명이 되어 퍼지는 지하 주차장과
 버려진 식탁과 다리 부러진 의자와 문짝이 떨어진 냉장고와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모든 길과 콘크리트 도로와
 눈 내린 들판에서 홀로 임종을 기다리는
 ‘중앙아파트’의 덩벙 같은 외로움을, 그는 본다.
 보다가 스며들고, 스며들다 번진다. (하락) — 문계봉, ‘가정동 엘레지’

그러나 마을 혹은 도시,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과 상생을 위하여

인간이 무리 지어 생활한 이후, 숲한 마을이 생겨났고, 숲한 마을이 사라졌다. 어떤 마을은 스스로 사라졌고, 또 어떤 마을은 외부의 힘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다. 새로 생긴 마을 앞에서 무리들은 희망 속에서 부지런했고, 사라진 마을 앞에서 무리들은 절망 속에서 공허했다. 생겨난 마을의 희망은 무리의 후손들과 더불어 확대재생산 되어갔고, 사라진 마을의 절망은 무리의 후손에게 추억과 회한으로 각인 되었다. 다시 또 오랜 세월이 냉정하게 흐르고, 강과 산이 변하고, 그 강산의 성품을 이어받은 무리들의 성품도 변해갔다. 어떤 무리들에게 세월은 야속했고, 또 어떤 무리들에게 세월은 믿음직스러웠다. 마을을 잃는다는 건 삶과 문화, 꿈과 추억을 잃는다는 것이고, 마을을 이룬다는 것은 희망의 확대와 생명의 보존과 추억의 양산을 이룬다는 것이다. 무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나이 든 세대의 전언(傳言) 통해서 알았으며,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알게 되었다. 마을의 생성과 소멸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마치 한 생명체의 살이(生) 같다는 것을……. 하여 그것은 자연발

생적으로 생겨 성장하고 변화하며, 변화하다 사라지는 것이지 인위적 힘, 이를 테면, 외침과 폭압과 문명과 자본의 비루한 욕망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

그렇게 저렇게 세월은 흘러 흘러, 이제 문명인이 된 일군의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는 21세기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그악스런 욕망의 기제들 앞에 무방비로 서 있게 되었다.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면 어김 없이 그 삶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형성돼 온 마을과 도시는 이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발자들과 몇몇 단견(短見)의 도시 정책 담당자의 손끝에서 생성과 소멸의 치욕을 겪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엔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에선 문화와 예술, 상생(相生)의 규범과 희망의 담론들이 계절의 변화처럼 생겨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통한의 교훈!

이제 마을과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의 생계를 해결해주는 편의적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건강하고 개성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 공간이어야 하고, 어린 세대의 교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의 공간이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공간이어야 하고, 결(潔) 고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행복의 공간이어야 한다. 저마다 만들어가는 마을만의 고유성은 다른 마을의 고유성과 자연스럽게 만나 혼용되고, 발전하고, 끝내는 높은 차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며 보편성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협의의 의미로서의 마을을 넘어, 계급과 계급, 성(性)과 성(性),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등 다양한 부면의 문화 접촉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미시(微時)에서 확보된 원칙과 경험들이 자유와 필연의 법칙으로 거시(舉示)의 세계를 해석하고, 주체적 수용으로 이어져 ‘살맛나는 마을, 행복한 도시’의 형성을 앞당길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여, 이제 자본을 등에 업은 상업 문화의 공세와 건강한 문화 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할 시점에 ‘마을과 도시’를 화두(話頭)로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체로서의 ‘낙원’은 아니더라도 ‘지향’으로서의 낙원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자 우리 실천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과 나는 지금 어떤 ‘마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꿈꾸는 도시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도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90%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길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시골보다는 도시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에 가면, 하고 싶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도시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또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풍족하게 키울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빌어먹어도 서울이 낫다’ 라는 6~70년대 유행하던 말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꿈꾸는 일자리와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학교가 모두 도시에 있다. 따라서 도시속의 삶에 대한 욕구는 지속될 것이다. 도시로 모여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수평적, 수직적인 도시 확장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환경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들이 늘어가고 있다. 아파트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었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역에서는 주차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도시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명문 학교와 대기업에 들어가야 하고, 비싼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힘겨운 도시생활이 반복되면서 도시에서의 탈출을 꿈꾸고 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에 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서로 다르다.

도시에서의 지친 삶에서 벗어나 한가하고 여유로운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쟁하고 갈등하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과거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사람과 사람간의 친밀한 관계망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을’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 일부 용감한 이들과 나름 가진 이들이 실행에 옮기면서 도시를 떠나고 있다. 그런 이들을 부러워하는 시선 또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주는 다양한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등이 도시에 내재되어 있는 불편함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오히려 많다. 어쩌면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그것이 더 당연할 수도 있다. 과거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도시에서 겪는 불편함을, 이제는 도시에서 자란 이들이 시골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또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도시의 형태와 기능은 지속될 것이고 도시에서의 생활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와 고민은 더욱 복잡하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세대와 계층에 따라 느껴지는, 상상하는 도시의 모습은 크게 다를 것이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도시는 과연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면 과연 어디에 맞출 것인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함께 하는 도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과연 무엇인가? 너무나 크고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 답을 제시할 수 없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새로운 방향들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소중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과거 ‘마을’의 모습을 현대 도시사회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그 중에 하나다.

도시에서는 사라진, 과거 마을단위에서 활발했던 ‘공동체’ 모습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도시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도시에서의 불편함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새롭게 형성시키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공동체 부활은 그간 수동적이었던 도시에서의 삶을 그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가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발제 자료 중에서, 도시의 재생과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은 장소의 회복이라고 제시하였다. 장소는 인간에 의해 재구성된 공간이기에 좋은 장소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좋은 공동체는 다시 좋은 인간을 만들고, 좋은 인간은 더 좋은 장소를 꿈꾸는 과정에서 도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표현하였다. 장소

와 도시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최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기반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러한 맥락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면철거 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과거 ‘마을’의 공동체 개념을 도입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 낯선 방식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단이기에 불합리하게 추진되는 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를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에서의 삶은 늘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전제하고 있기에 과거 ‘마을’에서의 삶과 같을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염려하고 나를 포함한 우리의 생활을 함께 고민한다면 도시에서의 불편했던 많은 일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고민하며 생활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작은 도움을 준다면, 그들의 관계망은 더욱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망이 커지고 강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공공의 작은 역할만으로도 우리 도시는 살 만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모두가 함께 하는 도시다.

제9회
도시인문학
세미나

Ⅲ. 인천도시인문학센터

1. 도시인문학
2. 인천도시인문학센터

1. 도시인문학

○ 인문도시의 비전과 도시인문학의 과제

도시가 그 주인인 도시인의 소외를 심화시키는 역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환경과 생태주의적 비판, 여성주의적 실천, 소수자 운동, 마을공동체 회복 운동,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도시인문학은 이러한 실천의 성과를 참조하면서 더 근원적인 문제, 즉 도시를 ‘사람의 도시(human city)’, 나아가 인본주의가 구현되는 ‘인문도시(humaine city)’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문도시’란 일반적으로 인문체험·인문강좌·인문행사 등을 통해 문학·역사·철학·종교·예술 등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비인간적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가치’ 회복을 도모하는 인문공동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인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도시를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1) 인문도시는 도시가 간직한 문화자원을 보존, 발굴,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 가치를 창조한 도시(창조 도시)
- (2) 인문도시는 도시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도시인의 문화 향유권을 확장시킨 도시(다문화주의 도시)
- (3) 인문도시는 도시의 주체인 도시인들이 각종 활동과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을 가능케 하는 도시(공동체 도시)
- (4) 인문도시는 도시인(주민)과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여 개발된 도시(참여 도시)
- (5) 인문도시는 기존의 문화자원 및 거주민의 생활문화를 지속 가능하게(sustainable) 기획한 도시(문화적 지속가능성)

○ 인문도시의 당면과제

일반적으로 도시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등과 같이 공학의 영역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도 오랜 전통을 축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 철학, 문학적 탐구는 도시계획과 설계의 기초이기도 하다. 인문학자들의 과제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문학자들은 실천적 전략을 설정하고 그 해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1) 도시가 인간주의적 장소(place)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의 주체인 도시인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문학적 관점의 도입이 요청되며 도시 문제에 대해 인문학자들은 학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2)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행정가와 도시공학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인문학자들의 일상적이고 유기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도시 계획 그룹과 인문학자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 (3)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도시인문학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 문학, 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각 도시의 인문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재원과 조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문학과 도시공학 및 정책과학이 협력하는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 (4) 도시와 지방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 인문학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내 타도시는 물론 해외의 도시 연구자들과 연구의 경험을 교류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하는데 노력합니다.
- (5) 도시는 인간, 환경, 문화의 유기적 공존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 환경, 문화가 공존 발전하는 도시란 외형적 경관이나 방문자의 눈에 아름다운 도시일 뿐 아니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도시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인천도시인문학센터

○ 연혁

2011	2011. 12	인천발전연구원 직제규정
2012	2012. 1	센터장 임명(김창수 연구위원)
	2012. 2	인천도시인문학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2012. 2~12	인천 도시인문학의 아카이브화를 위한 기초자료 입력 틀 설계 및 자료수집
	2012. 2~12	인천시민생활사 자료 수집을 위한 구술 채록 매뉴얼 작성 및 구술채록
	2012. 3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 개편 계획 수립
	2012. 4. 24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개소식 제1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인문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의 탐구」
	2012. 5 ~12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2012. 9. 30	『인천연구』제6호 발간
	2012. 10 ~12	『2012 인천 부평구 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2012. 11. 15	제2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서해안의 해양문화 연구현황과 과제」
	2012. 12. 17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개최
2013	2013. 1 ~12	인천도시인문학 DB구축
	2013. 1 ~12	인천시민생활사 구술자료 채록 수집연구
	2013. 1. 19	제3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교동 관방체제의 역사」/강화 교동도
	2013. 3 ~ 5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행사 연구
	2013. 3. 7	제4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현황과 자료화」
	2013. 3. 12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개최

2013	2013. 3 ~10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기념사업」 - 〈인물로 보는 인천역사〉 인천 인물선정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6.20) - 인천 인물선정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7.18) - 『인물로 보는 인천사』 발간(9.30) - 「인천선언문」 작성(10.15)
	2013. 4. 9	〈인천 남구의 문화적 특성〉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세미나 개최
	2013. 9. 16	『인천연구』 규정 개정 및 편집위원회 개최
	2013. 9. 30	『인천연구』제7호 발간
	2013. 11. 7	제5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현황과 전망」
	2013. 12. 5	제6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전통놀이문화 복원 가능성(인천의 청황패놀이, 경신역마놀이)」
	2013. 12. 16	인문도시연구총서 발간보고회 및 도서헌정식 개최
	2013. 12. 20	인문도시연구총서1, 『파도위의 삶, 소금밭에서의 생』 발간
2014	2014. 1 ~	인천시민생활사 구술자료 수집
	2014. 1 ~	인천도시인문학 DB 구축
	2014. 2. 13	제7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문화관련법 제정과 인천문화정책-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2014. 2 ~ 9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 비전전략 수립」 연구
	2014. 4. 4	『ID 도시연구』 (구『인천연구』) 규정 개정 및 편집위원회 개최
	2014. 9. 30	『ID 도시연구』 (구『인천연구』) 제8호 발간
	2014. 11. 12	제1회 인천도시인문네트워크 회의 개최
	2014. 11. 12	제8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인천의 전자출판 활성화 방안」
	2014. 11. 27	제9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도시와 마을을 보는 문인들의 상상력」

○ 기본방향

- 인천의 역사·문화·사회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
- 인천의 도시인문학 자료와 인문자원을 축적·콘텐츠화하여 문화·경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인문학과 도시정책연구를 융합시켜 인천의 고유성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 정책과 비전을 수립함

○ 주요기능

- 인천 도시인문학의 체계화 :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상에 대한 근대 성찰적 연구와 인천 고유 자원과 역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인천 인문자료와 자원의 콘텐츠화 : 인천 인문학의 기초자료 및 연구 결과 아카이브화, 활용도 높은 콘텐츠로 전환
- 융합연구를 통한 정책연구의 혁신 : 도시 ‘인문학-정책학’의 협동·융합 연구를 통해 지역 고유 자원에 기초한 대안적 도시재생과 도시비전 생산

○ 주요사업

◆ 인천도시인문학 DB구축

- 인천 도시경관이미지(사진, 엽서) 수집 및 입력
- 인천 도시 변화 관련 도판, 지도 수집 및 입력
- 인천 경관 묘사 외국인 기행문 번역 및 입력

◆ 인천시민생활사 구술자료 수집

- 시민원로의 인천시민생활사 및 증언 채록
- 인천시민생활사 자료집 발간

◆ 〈도시인문학세미나〉개최

- 도시인문학 관련 전문가 발표 · 토론
- 연 4회 개최

◆ 『IDI 도시연구』 (구『인천연구』) 학술지 발간

- 연 1회 발간
- 인천도시연구 및 해양문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게재

◆ 『인문도시연구총서』 발간

- 연 1회 발간
- 구술채록사업의 결과물을 단행본 형태로 기획 · 출판